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7.15.(수)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농수산물검사부 (남부농산물검사소)	부 장	도영숙 (031-8008-9800)					
		팀 장	김양희 (031-8008-9740)					
		담당자	이예은 (031-8008-974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쌈채소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99.1% 적합

- 휴가철 소비 증가 쌈채소 등 여름철 주요 농산물 21품목 111건 검사
 - 110건(99.1%) 적합 판정. 부적합 제품 1건 즉시 판매 중지·유통 차단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쌈채소와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잦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품목 111건 가운데 110건(99.1%)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와 일반마트, 로컬푸드매장, 도매시장 등에서 상추와 들깻잎, 오이, 알배기배추, 고추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농산물과 근대, 부추, 열무, 치커리 등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했다.

시료 11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5종을 검사한 결과, 들깻잎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탈로닐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 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